

제주지역 화장률 사상 첫 70% 돌파

지난 2001년 16.1%→ 2011년 54.8%→ 2018년 70.1%
전국평균엔 15%p 차… 최근 장묘문화 인식 바뀌어

전국 최하위인 제주지역 화장(火葬)률이 사상 처음 70%(잠정 집계)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1년 16.1%에서 3년 뒤 31.5%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5년 35.0%에서 13년만에 또다시 2배 늘면서 사상 첫 70%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화장률은 70.1%(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70.7%로 확인

되고 있다. 6월말 현재 제주시 75.6%, 서귀포시 61.2%로 양 행정시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말 기준 전국평균 화장률은 84.6%였으며, 부산(93.0%), 인천(92.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는 69.4%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71.5%)과 경북(74.8%) 순이었다.

제주지역 화장률은 2001년 16.1%를 기록한 이후 2003년 26.0%, 2004년 31.5%, 2007년 41.0%에 이어

2011년 54.8%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그 뒤 2014년 63.5%, 2016년 67.7%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국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내륙지역과 달리 가족·문중 묘지가 많고 유교와 토속신앙 문화가 잔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몇년 전부터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화장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화장에 따른 공설 봉안당과 자연장 시설현황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화장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 도내 공설봉안당의 봉안능력은 6만1327기로 2만3753기가 봉안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어승생 한울누리공원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의 안장기수도 7000기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윤기자



먹이 나르는 개미 10일 제주시 한 하천에서 개미 한마리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강혁만기자

“안 잠졌네…” 차량털이 범죄 기승

경찰 범죄취약지 순찰·거점근무 강화

제주지역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차량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 안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9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일도2동과 이도2동에서 10회

에 걸쳐 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비슷한 인상 착의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9일 오전 11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시 화북·삼양동 일대를 돌며 7개의 차량과 오토바이에 있던 수습만원을 훔친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추석 연휴에는 차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제주경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 범죄취약지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기능을 불문한 '112총력대응'을 전개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 소송전 마무리

지법·고법에서 한진 승소
도 “실익없다”… 상고 포기
지하수 증산 논란 계속될 듯

지난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반려하면서 촉발된 소송전이 결국 한진그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여겨졌던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이어 지난달 1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까지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것에 승복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은 2017년 4월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100t에서 150t으로 증산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했고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2017년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해버렸다.

이에 한국공항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증산 신청 조치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하수 증산 허가 여부는 별개 문제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기내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200t 규모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고,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용량을 고려해 취수량을 100t으로 감축했다.

이후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200t 규모의 취수 허가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특보와 검찰을 통해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상태”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지역 수능응시자 430명 감소

2020학년도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4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수험생 707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도교육청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도내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재학생 5569명과 졸업생 1352명, 검정고시합격자 149명을 포함해 총 707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전년도 접수 인원 7500명과 비교하면 430명이 감소한 것으로 재학생이 483명 줄고,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가 각각 28명과 25명이 증가했다.

수능원서 접수 인원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고3 학생 수가 7640명, 올

해 고3학생 수가 6930명으로 710명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 응시생 중 졸업자의 비율은 2019학년도 17.7%에서 2020학년도 19.1%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19 강원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결과 공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의 응원”

소중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피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 산불 피해 이웃들을 위해 긴급모금을 실시했고, 약 50만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신 강원도청과 언론사 및 관계기관, 봉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 강원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모집 내역 (2019.8.8 기준)	지원 내역
모집 금액 362억3천886만706원	지원 금액 1차(2019.4.30.) 799세대 115억6천600만 원
모집 물품 약 37만 점	2차(2019.7.23.) 876세대 220억7천332만 원
	지원 물품 약 37만 점

※ 희망브리지는 산불 피해이웃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후원 문의 1544-9595 | www.relief.or.kr

50만